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보름 전 제주도와 인천을 오가던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거리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노란 리본과 흑백 현수막들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것은 곧 실종자들의 무사귀환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기에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 짐을 느낀다.

아직도 눈에 선한 것은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도 얼마 뒤에 닥칠 죽음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천진난만한 얼굴로 부모모든이나 친구들에게 '난 괜찮아'라는 문자를 보내던 옛날 학생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 저렇게 살아 숨쉬던 아이들이 여전히 차가운 바다 속에 그대로 갇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일까, 누군가는 현재의 상황을 가리켜 '대한민국은 지금 국상(國喪) 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침울함 속에 빠져 있다는 말일 것이다.

세월호의 어이없는 침몰사건을 두고 뜻있는 사람들은 그 배아말로 커져이 쌓인 우리사회의 각종 병폐들을 적나라하게 상징하고 있는 '절망의 배'와 다를 바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승선해 있는 대한민국호가 서해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마저 든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살아남은 자들에게 남겨진 몫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별 때일수록 평상시의 회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잘 알고 있다시피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는 소비욕구를 완전히 상실한 채 비틀거리고 있다.

더군다나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스승의 날 등 공휴일이 많아 기업이나 각종 시민단체에서 아우회와 체육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마련인

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모두 취소되어야 할 판이다. 레저와 미용 및 의식업의 카드 사용액도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덩달아 여행업계도 울상이 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이벤트 업계의 5월 행사가 90% 이상 중단되었다고 하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세월호의 희생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애도의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감히 어느 누구도 전국적인 반소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설 수 없게 된 것이다. 음식점도 만원이고 옷가게도 붐벼야 택시기사들의 호객행위도 정겹게 들린다. 그것이 서민경제의 살맛나는 풍경이다. 하지만 지금은 음식점의 단체회식 예약이 무더기로 취소되는가 하면, 술도 기껏해야 한 두잔만 마시고 귀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리기사들도 당장 생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라는 원성이 자자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방적 사회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사고 관련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일은 당연히 삼가 해야 되겠지만 사회전체의 경제활동이 지금처럼 위축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고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한편, 일반국민들의 일상적인 삶도 다시 활기를 찾는 사회통합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 넘은 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세월호의 침몰로 요약되는 과거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하루빨리 떨쳐버리고 원칙과 배려 및 신뢰가 넘쳐나는 미래의 대한민국호, 즉 '희망의 배'를 다시 출항시켜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절망만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희망의 새싹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살리려고 애쓰다 자신의 목숨을 바친 승무원과 교사들도 있지 않았던가. 그들의 살신성인은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불씨가 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자가 바로 세월호 침몰의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자였다면 자각이 폭넓게 공유될 수만 있다면 꽃다운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희망의 배'를 띄우자

社說

'부처님 오신 뜻' 실천이 가장 큰 포교

지난 5월 6일은 부처님오신날이었다. 석가세존이 자비광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추기 위해 나투신 불기 2558년이다. 카필라성의 싯다트라 태자는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하늘과 땅 위에나 홀로 존귀하여라(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외쳤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이 열린 이래 가장 귀하고 빛나는 존재는 오로지 사람이라는 인간 존존의 확인이라는 의미다. 즉 일체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녔다는 뜻이다.

부처님 때문에 우리는 번뇌를 벗어나 참다운 인간이 되는 길을 배웠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을 버리라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집착없는 마음으로 갖가지 선을 행하면 곧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 라고 했다. 우리가 무명의 바다를 헤매거

나 번뇌에 휩싸일 때 이 명확한 가르침은 삶의 등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남기신 법대로만 살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불자로서의 삶의 지표가 명확해 지는 순간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제자를 자처한 우리 사부대중은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이 땅 위에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노력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분기탱천할 상황이라도 '성냄'을 경계하라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 조금 더 자제했는지, 대덕(大德)으로 상생의 깨우침을 나눠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법대로 사는 일이 가장 큰 포교요 원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보길 바란다. 그것이 이 땅에 부처님께서 오신 큰 뜻이 아닐까?

'템플스테이' 통해 국민 아픔 치유하자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심리적 외상을 입혔다. 사고 이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수요도 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오죽했으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국민들을 위해 대한신경정신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와사회가 정신건강지침서를 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사건을 망각하기보다는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대처능력에 더 큰 자신감을 갖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반을 뒀다. 김영훈 대한신경정신학회 이사장은 "스트레스에 대한 극복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정신건강지침을 통해 보다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현재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정의 달, 5월이지만 놀이공원, 유원지 등은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휴식이 필요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성토들도 적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불교가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치유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가장 좋은 아이টে임을 불교는 가지고 있다. 바로 '템플스테이'다.

실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 발표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성취도에 있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아성찰 등 정신건강 가치가 5.45(7점 만점)로 가장 높았으며, 템플스테이 발전의 중요 가치 역시 정신건강이 6.32점(7점 만점)으로 국민들은 템플스테이의 정신적 가치에 기대?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주목하는 만큼 불교계와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은 산문을 활짝 열고 대중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자비와 마음으로 감사 안아 치유해야 한다.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시대적 과제이고 포교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발언대

세월호와 부처님오신날

5월 6일은 부처님오신날이었다. 전국 사찰에서는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다. 하지만 올해 봉축 법요식은 희생자들의 추모하는 법식으로 진행됐다.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불자들의 단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다함께 행복해지는 길 고민하자"

우선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세월호 참사를 보며 부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본다. 부처님께서 카필라성의 동서남북 네 문으로 나가셨다가 각각 늪은이와 병자, 죽은 사람과 수행자를 보고 출가할 뜻을 품으셨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만든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 땅의 젊

은이들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사회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과중심주의 황금만능주의를 자각하고 깨닫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되어 다함께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위해 진정 행동할 수 있는 불자가 되었으면 한다.

김석범(동국대 대학원 응용불교학과)

"추모 연등회, 사람들 하나로 이었다."

지난 4월 28일, 세월호 희생 학생들에 대한 추모로 연등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앞으로 있을 구조에 대한 기원의 마음으로 노란 리본을 달았고, 그 마음을 연등에 담았다.

동대문에서 종로까지의 행렬을 지켜 보는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줄어 있었지만 참국의 슬픔을 함께한 연등 물결 덕분에 어느 때보다 한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는 우리 사회 단면

세월호 참사를 TV로 접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옆에 자고 있는 내 아이를 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어찌 모습일지 생각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희생자들의 애도와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를 삼가할 때다.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들의 안위도 함께 돌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 공무원이 정말 '공무'를 할 수 있는 사회. 골목 곳곳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놀면서 세상의 희망이 넘치는 사회. 우리 앞에 펼쳐진 사회는 이와 같아야 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물염치한 사회의 악순환을 우리 앞에서 끊어내야 한다.

김자인(직장인)

오용성(개인 사업자)

우리 삶 돌아보는 계기 삼자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정부가 국민들의 목숨을 책임지지 못하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팠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기본적인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미안할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총체적 인재였

다. 무책임한 선장과 직원들, 무능한 정부와 관료들부터 먼저 자성하고 쇄신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처님 연기사상에 맞춰 배 때 우리는 공업 종생이다. 누구 탓을 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깨달아야 한다.

송지희(30·주부)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흥교 (법화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교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기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